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베드로후서-

레위기 11:44-47, 베드로후서 1:1-7

정윤돈 목사님

서론 : 베드로후서 개관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1)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대단히 교양있게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베드로전후서를 읽어보면, 헬리어 문장이 아주 깔끔하고 좋다. 헬리어가 복잡한 언어인데,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문법을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거의 없이 깨끗하게 쓰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벵전5:12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실루아노를 통해서 써서 보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했던 실라를 말한다. 이렇게 항상 동역자가 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응답을 받으면 된다.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 사명, 천명을 받을 때, '못 한다'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하면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하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돌아보면 연약한 부분, 창피한 부분이 많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도, 나중에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 않나. 그러나 30년 후의 베드로는 너무도 성숙해져 있었다. 이것이 베드로전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고, 대상지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다. 벵후1:1을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보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문제는 무엇인가? 고린도교회도, 갈라디야교회도,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들이 생기고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타락이 들어오는 것이다. 미국에는 사탄교회, 동성애자 교회가 있다고 한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윤리,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로 들어온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막고 경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후서다.

(3)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① 첫째로, 거짓 이단과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신천지 이단 대책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한다. 정말 거짓말투성이의 사악한 집단이다. 이만회가 과거에, 청년 때부터 이단에만 계속 있었다. 이단 속에서 30, 40년 동안 있으면서 배운 이만회가 그 교리를 가지고 새로 창업한 것이 신천지다. 그러나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JMS든, 통일교든, 70, 80%의 이단 교리는 거의 똑같다. 누적되어 온 것이라서 아주 체계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단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정밀하게 연구한다. '거짓 교사'라고 했다. 거짓을 가르치면서 영혼을 빼앗는 것이다.

② 둘째로, 당시에 널리 퍼진 것이 안티노미아니즘이다. 도덕 무용론을 말한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좀 타락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동성애를 많이 했던 동네다. 그곳을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켰지 않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남자 모습의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다. 너무 못미남이어서 그랬다. (웃음) 롯이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저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동성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켜 버렸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

도 동성에 이야기를 심각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두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이다.

③ 셋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벵후3:4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만물이 그냥 있었던 그대로 계속 있게 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벵후3:8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다. 주님의 입장에서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천 년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인생 백 년도 금방 지나간다. 자녀도 금방 크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 신앙을 항상 가져야 한다.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다. 예수 믿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니까, 주님 오시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과 타락한 영적 상태는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바란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 내부적으로는 각양의 악한 이단에 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는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두 가지 답을 전달하고 있다.

1.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첫째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에 말씀드렸다.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하는 일이, 한 달 동안 바른 지폐만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다. 정확한 돈을 알고 나면 가짜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된다. 이단들이 더 많이 읽는다. 성경 속의 참된 복음을 발견해야 한다.

(1)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했다(벵후1:4). 창3:15, 피 제사, 그 모든 제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새 언약도 그리스도다. 신천지는 새 언약을 이만회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지금은 이만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여기 빠진 사람 90%가 기독교인이었다.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국어를 못 해서 그렇다. 천하 인간에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다니니까 이런 이단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벵후1:4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극히 보배로운 이 복음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배와 같이 귀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지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복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보배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단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신천지에도 신천지 144,000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영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속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안에 들어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농락을 하는 것이다. 이 거짓을 말하게 하는 사악한 영, 거짓의 영에 그들이 붙잡혀 있다. 세상 악당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통째로 뽑아 버리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 당연한 것, 절대적 필연적인 것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령충만을 받으시기 바란다.

(2) 생명의 복음이란, 옛 죄를 깨끗케 하는 것이다. 벵후1:9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암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만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하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주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옛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닮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된다. 이단들의 특징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재림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통일교 영상을 보니까, 우리의 재림주, 참 아버지 문선명이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계시록을 자기가 먹었다고 한다. 코미디인데, 그 코미디를 보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더 코미디다. (웃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깝나. 그러면 지옥가는 것이다. 크게 따라해 보라. “이만희 믿으면 지옥간다.”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과 논쟁을 하다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정리되었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성경 몇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교회가 모여서 신약 27권을 정경화하게 되었다. 천주교가 너무 복음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 이것을 막고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루터였다. 항상 교회의 역사는 이단이 나왔을 때,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진리가 확립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준비되시기를 축원한다. 이만희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만희는 다른 이이다.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 요절을 다 암송하시기 바란다.

(3) 세 번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벧후1:10).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가? 도둑질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단에 빠져서 복음을 부인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기쁘고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단으로 빠져서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기독교인들에게 써서 보냈다. 그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이단에게 팔아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바꾸 버리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

2.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실천하라.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먹어야 할 것과 안 먹어야 할 것을 다 구분한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말이나 행동도 제멋대로지만, 성숙하니 이것도 변화되는 것이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법이다.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라. 믿음과 생각과 행동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까지 성장해야 한다.

(1) 벧후1:4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서밋, 인격적 서밋의 최종 목표다.

(2)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 힘써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나는 힘써라, 노력해라 하는 말을 안 좋아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한다. 그 힘든 훈련을 즐겨워한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목숨을 걸고 하라. 그것을 즐겁게 해야 한다. 그게 영적인 프로, 영적 서밋이다. 학문하는 교수가 공부에 지겨우면 서밋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즐거워야 한다. 공부도 기도도 전도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벧후1:5-7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치유하고 갱신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전문성도 지식도 영성도 같고 닦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벧후1:10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벧후1:15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힘써 메시지를 정리하고 전달했다. 순교하기 전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다. 여러분도 구역원을 지키도록, 가족들을 지키도록 힘을 써라. 필요없는 것 말고, 필요한 것,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에 집중해서 힘을 써야 한다. 안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하는 집착이 된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기 바란다.

(3) 벧후3:18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최종적인 요절이다.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이단 문제, 타락 문제, 핍박 문제, 많은 삶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자라가야 한다. 나는 목사이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 말씀을 읽고, 수십 번을 읽는다. 이 영적인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결론 : 기록하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미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미션을 드리겠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란다.

(1)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성공시키는지에 대한 자기 방법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에게 자기 인생 목표를 적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기만 했는데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묵상하면서 적어보시기 바란다. 이것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란다. 우리교회 뿐 아니라 우리 노회가 해야 할 목표도 있다. 전도협회, 총회, 한국교회에 주신 목표가 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단을 막고, 동성애를 막고, 무슬림을 막는 것이다. 이 무슬림들을 살려야 한다. 우리 디락방 안에도 무슬림이었다가 복음 받은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제자인지 모른다. 이런 목표를 두고, 천명, 소명, 사명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윤돈아, 나의 목표는 네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 않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부모님이 그렇지 않나. 자기는 힘들어도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나.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기도를 깊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릴 때 참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 관광 많이 하고 여행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행복하겠는가.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겠는가. 그게 참 성공인가. 아니지 않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도 따라 성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모든 가정과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도 마음도, 더러운 행동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누려야 한다. 마약 환자들을 만나 보니까 전부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마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 보고 나니까 후회만 남았다고 한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지만, 오직 예수, 정확한 복음을 알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이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복음이 희미해지며,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서, 노회와 교단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